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2013년 3월에 진행된 전국 경공업대회에서 우리 당은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믿고 가까운 시일안에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킬 결심과 의지를 선포하였다고 하시면서 류원신발공장의 생산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88년 11월에 창립된 류원신발공장은 우리나라의 첫 사출운동신발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들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보시면서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질 좋고 맵시있는 신발들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신 장군님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온 나라 곳곳에 일떠선 경공업생산기지들은 큰것으로부터 자그마한것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몸소 씨를 뿌리시고 하나하나 품들여 마련해주신 고귀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놓으신 경공업의 튼튼한 토대와 잠재력을 총폭발시킴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인민소비품이 차례지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생산자들의 정신풀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속에서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제품진



렬실, 사출직장, 재봉직장, 제화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신발생산 및 경영 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제품진렬실에 전시된 아동신발, 봄가을신발, 여름신발, 겨울신발들과 축구화, 롱구화, 룡상화를 비롯한 운동신발을 보시고 공장에서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고 울리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종업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새 제품개발정형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 미감에 맞는 신발들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신발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류원신발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류원신발공장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

장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류원신발공장을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있어서나 종업원들의 로동조건에 있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소비품은 하나하나가 인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원만히 보장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시제품이나 견본품을 만들어 전시하거나 상점에 진렬하는데 그치지 말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공업 부문을 비롯한 련관부문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인민들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책략을 바로 세우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공업 부문이 용을 쓰며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온 나라가 발을 맞추어 인민소비품 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가까운 기간에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숙원을 기어이 풀어드리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류원신발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신발생산과 제품질제고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과 체육인들을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언제나 잊지 않고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 공장이 일떠선지 몇해밖에 되지 않지만 온 나라에 소문이 나고 공장제품에 대한 인기와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이 만가동, 만부하로 돌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잘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안고 더 많은 건강음료들과 영양식료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기대들마다에서 여러가지 식료품들이 쏟아지고있는것이 보기만 해도 호뭇하다고 하시면서 적은 로력과 크지 않은 생산

면적을 가지고 많은 량의 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대해 기뻐하시였다.

식료품의 가지수도 다양하고 포장용기도 자체로 생산하고있으며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제품포장을 문화성있게 하고있다고 평가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각종 음료들, 효모빵, 단빵, 설기빵을 비롯한 영양빵들과 떡류들, 과일향사탕, 젓기름사탕, 콩사탕, 단묵, 경질과자, 연질과자 등 고급당과류들, 햄, 꿀바짜, 쏘세지를 비롯한 고기 가공제품들은 질도 높고 영양성분이 충분히 들어있어 인민들과 체육인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체육부문뿐아니라 나라의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는 우리 체육인들의 영양관리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그 질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꺾을 비롯하여 체육인들에게 절실히 필

요하며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식료품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경영활동의 정보화,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에서 적극 도와주겠으니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도 인민군대의 식료공장처럼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전변시키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문화후생시설들과 온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습식 및 건식한증관이 달린 목욕탕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으며 생산건물의 옥상에 건설한 온실이 특색있다고, 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는것이 마음에 든다고, 갖가지 남새를 재배하고있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종업원들이 자기들의 일터를 늘 자랑한다는데

공장에 대한 자랑은 그대로 공장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곧 더 높은 생산실적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비결은 일군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해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경영활동과 기업관리를 잘하고있는 리정호를 비롯한 해당부문과 공장일군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같은 식료가공기지를 수많이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조국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에서 계속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인민들과 체육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를 꾸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길이 빛내이며 나라의 체육과 식료공업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우리 인민이 누리는 사회주의복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직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실지 생활체제를 통하여 사회주의만이 자주적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복을 안겨준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들의 행복에 대한 리상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높아지지만 그것은 어느 사회제도에서나 다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시각도 남조선과 같이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썩고 병든 사회에서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시위가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으며 철부지 어린이들이 꽃망을 조차 피우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참사가 도처에서 일어나고있다.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에서만 꽃피울 수 있는 복이 사회주의복이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사회주의복은 자주적 인간의 높은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나가는 참된 삶의 복이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값높고 귀중한 생활은 자주적 인격이다. 남의 지배와 예속 밑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있을 수 없다. 하루를 살아도 자주적인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면서 떼떽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다.

인민들의 자주적인 삶은 사회제도의 우월성에 바탕을 두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제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세상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 빛을 뿌리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에게 모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인

민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있다.

자주적인 삶의 복,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귀중한 사회주의복의 근본핵이 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사회주의복은 궁지 높고 보람찬 창조적 노동의 복이다.

인간의 기쁨과 행복은 결코 즐기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창조적인 존재인 것으로 하여 노동에서 보람을 찾고 자기의 창조물에서 커다란 만족을 느끼게 된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창조의 기쁨은 인류의 리상사회를 앞장에서 건설한다는 높은 긍지이며 비약과 혁신의 대고조시대를 개척해나가는 더없는 영예감이며 누구나 자기의 재능을 다 바쳐 후손민대의 행복을 꾸어가는 삶의 희열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며 고통을 겪고 지어는 목숨까지도 끊고있는 자본주의세계의 취약성을 통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뼈저리게 절감하고있다. 누구나 노동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소질과 재능, 지식과 능력을 따라 보람찬 일터로 달려나가 애국의 구슬땀을 한껏 흘리며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인간의 창조력이 착취자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리용당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사회주의복은 물질문화생활의 진정한 향유의 복이다.

사회적부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이 그 진정한 향유자가 되어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는데 사회주의 사회의 참모습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회주의적 특색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건전하

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리고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그 무슨 《복지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민들의 참다운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계급모순을 가리우고 인민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물질 문화생활의 참된 향유의 복은 천만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는 당과 국가의 대해같은 사랑의 열매이며 인민들이 알고 받는 것보다 모르고 고마운 사회주의복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셔야 사회주의도 있고 인민의 행복도 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워주신 아버지 수령님의 한없는 그 사랑,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숭고한 정치신조를 지니시고 인민의 자주적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강행군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한평생은 우리 인민이 천만년 대를 이어 잊지 말아야 할 사회주의복의 근본원천이다.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를 자신의 정치신조로 간직하시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인민들이 살림을 편 창건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며 웃음소리 끊길 줄 모르는 문수물놀이장, 미림습마구락부, 류경원, 인민 야외빙상장, 룡라굽둥어관, 류경구강병원을 비롯한 창조물마다에 그의 인민사랑과 헌신의 세계가 비껴여있다.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며 그리도 기쁘시여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 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사는 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 매일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일을 더 잘하자고 하시는 원수님이시다.

참으로 우리 인민이 누리는 사회주의복은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행운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게 한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애국의 열정을 더욱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가사 김정은장군의 노래

주체조선 높은 기상 하늘땅을 뒤덮고
통일의 위업 찬란히 빛낸 민족의 령수
통일겨레 한결같이 영광을 노래하네
아아 영원한 겨레의 존엄 김정은장군

아 발걸음 닿는 곳에 터져 솟는 감동감화
인민의 행복 인민의 축복 목숨바쳐 따르리

선군조선 혁명위업 5대양에 넘치고
자주의 위업 총대로 지킨 만민의 령수
은 세상 정의평화 승리를 축복하네
아아 영원한 진보의 등대 김정은장군

김정은원수의 노래

백두산혈통 이은 혁명의 새별
정의의 주체조선 만방에 빛내
선대수령 대를 이은 민족의 은인
(후렴)
만민이 칭송하는 김정은원수 자주조선
만만세
세상이 탄복하는 김정은원수 선군조선
만만세

태양조선 선군정치 온 누리에 퍼지고
철학의 진리 주제로 밝힌 사상의 령수
새 세기 선도하는 발걸음 울려간다
아아 영원한 선군의 위인 김정은장군

황금산 황금벌에 황금해 물고기산
부락의 노래 잡은 불굴의 천출령장
하루가 다른 눈부신 발전 꿈같은 선경

백두산 정기어린 예지의 해안
수령의 선군위업 떨치는 명장
평화로운 사회주의 사랑의 요람
(후렴)
백두산 통일조국 인류의 등대
조선의 자위자강 세계의 열망
자유로운 금수강산 문명의 락원
(후렴)

리준식 (재도이칠란드동포)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려고

나라와 민족의 절박한 중대사, 시대적과제인 조국통일성업을 하루빨리 이루며 겨레의 소원을 풀고 민족적통성의 새시대를 펼쳐야 한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때에 강조하시었다.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어도 기어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2년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오랜 세월 한강도에서 단일민

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 동안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잡고 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시었다. 그의 애국애족의 정치경륜이 집대성되어있는 연설과 담화를 비롯한 로작들에는 조국통일성업을 위한 그의 결심과 의지와 함께 조국통일위업 실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 등 원칙적문제들이 자자구구에 뚜렷이 명시되어있다.

지난해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에 도전해나선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적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에서 현이어나 울려나온 중대제안들의 자자구구에는 근 70년이나 지

속되고있는 민족분열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역사를 펼쳐치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깃들여있다. 그의이에서 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도 선수단을 파견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더욱 도모하도록 하시었다. 10월 4일에는 고무급대 표단도 인천에 파견하시어 통일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여주시었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의 제1위원장의 과격적인 조치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였다》며 남조선당국이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추모화환과 조의문을 보내온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좋은 계절에 너사께서 꼭 평양을 방문하여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시기를 기대한다고, 앞으로 회장선생이 평양을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정과 사랑을 담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편지는 또 얼마나 온겨레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던가.

지난 1월 20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인합회의에서 채택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는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때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였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대결책동에 의해 북남관계가 최악의 위기를 겪고있지만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확고한 통일의지를 온넛으로 새겨안으며 북남관계의 밝은 전도를 략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숭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수령님과 발벗은 소년

주체44(1955)년 여름 어느날, 공부 끝나고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뜻밖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뵈고 소년단경례를 갖듯이 드리는 창성군 아이들속에는 신발을 못 신은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수령님께서 먼지 묻은 자기의 발을 내려다보시며 안색을 호리시자 부끄러워 뒤로 물러서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물으시었다.

《너의 집에는 누가 계시느냐?》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 그리고 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
《아버지가 안계시느냐?》
《아버지는 전쟁때 전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 말씀이 없이 그 소년

을 꼭 껴안아주시었다.

그러시다가 수원들에게 《이거 보오. 이 애에게 신발 하나 신기지 못했는데 그 래도 이 애는 나를 보고 인사를 하오.》라고 하시며 안색을 더욱 호리시었다.

잠시후 수령님께서 소년의 집이 어디며 살림형편은 어떤가를 세세히 알아보시고 나서 아이들과 헤어지면서 좀 있다가 너희들의 집에 들려보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소년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려고 집으로 달음박질을 쳤다. 집까지 걸갈을 왔을 때 문득 뒤에서 경적소리가 울리더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신 차가 곁에 와서 멎었다.

수령님께서 차문을 여시고 어서 차에 올라타라고 손을 내미시었다.

소년은 자기의 발을 내려다보며 머뭇거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제 신발을 사신다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며

그를 차에 태우시었다.

그러시고는 그의 발을 내려다보시며 《돌길에 발이 아프지?! 발이 상하면 큰일이야, 학교에도 못가고...》라고 하시었다.

그 말씀에 소년은 눈물이 불쑥 솟아나 고개를 돌리고말았다.

어느덧 차가 소년의 집에 이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할머니,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신 후 부관에게 그들 3형제를 데리고가서 신발을 사신 거라고 말씀하시었다.

피그나 시간이 지나 그들이 신발을 사시고 돌아오자 그때까지도 마당에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소년의 신발 앞뒤를 꼭꼭 눌러보시고 야 마음을 놓으시었다.

소년은 목이 메여 《신발을 사주셔서, 공부 잘 할 겁니다.》라고 겨우 말씀을 올리고는 수령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말았다.

본사기자

나라와 민족의 진보와 발전에서 과학기술이 앞서나가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가 되는 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우리 나라가 오늘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 하고있는 것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고있기 때문이다.

주체102(2013)년 6월 어느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전민무장화의 구조를 들고 전체 인민을 그 어떤 침략자도 물리칠 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처럼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조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하시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원대한 포부와 필승의 신심드높이 자기 식의 전략과 원칙, 자체의 힘과 기술로 번영과 발전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만이 내세울 수 있는 목표이며 리정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시되는 올해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

국가과학원을 현지도 하시던 그이께서는 위성과 학자주택지구와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

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과학자들을 위한 건물들을 건설하도록 하시었다. 이것은 과학과 인재를 중시하시는 그의 정치의 그대 보여주시었다.

지난해에도 년초부터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

한 그의 사랑은 곧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이고 헌신이다.

하기에 공화국의 과학자들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어도 우리에게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고 하며 애국의 열정과 지혜로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전력하고있는 것이다.

높은 민족자존의 정신을 지니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민족발전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미래는 더없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리경월



주체건축을 따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다.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체육강국건설에 이바지할 애국의 마음안고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우리는 얼마전 나라의 체육발전과 식료공업발전이 크게 이바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았다.

우리 체육인들이 세계의 창공에 높이 휘날리는 공화국기와 선수들의 가슴에 빛나는 금메달. 바로 여기에는 체육선수들의 피로회복과 영양공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수고도 깃들어있다.

《우리는 훈련때는 물론 국제경기들에 나갈 때도 이 <금컵> 상표가 붙은 음료를 마시는데 정말 좋습니다.》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영양음료가 되어서 그러는지 마시고나면 피곤이 쏙 풀리고 힘이 납니다.》

《<금컵> 음료들이 이제 우리는 우리 체육선수들의 생활에서 떼어놓을수 없는 한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를 마시는 체육인들의 반응은 대단하다.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천연비타민음료, 피로회복음료, 체육인들이 자랑담아 정담아 하나하나 짚는 체육음료들은 그 가지수만 해도 20여가지가 넘는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위생관리로 체육인들을 위한 영양음료와 영양식품을 생산하고있는 공장이다.

우리는 먼저 공장의 기본생산단위인 음료작업반을 찾았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음료와 에스키모를

생산하는 설비들이 그쫘히 갖추어져있었다.

《체육음료는 세계적으로 놓고보면 역사가 오래입니다. 처음에는 선수들이 수분을 보충하는데 리용되여왔지만 최근에 체육의학이 발전하는데 따라서 선수들의 훈련때나 경기시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과부담으로 인한 피곤을 빨리 회복시켜주는데 널리 리용되고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체육선수들에게 여러가지 체육음료를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부지배인의 말이였다. 음료작업반에서는 체육선수들의 피로를 빨리 회복시켜서 경기능력을 보다 높일수 있게 하는 회복음료, 운동과정에 소모된 수분보충과 함



께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 체력활성음료를 비롯한 10여가지의 영양음료들을 농축액과 차가루, 음료형태로 만들고있었다. 영양음료들과 함께 복숭아향탄산음료, 사과향탄산음료와 같은 여러 종류의 탄산음료들, 에스키모도 생산되는 현장은 볼수록 우

리를 호뭇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여러가지 영양음료를 마시며 기뻐하는 체육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가슴에서 빛나게 될 금메달을 그려보며 땀작업반을 찾았다. 원료투입으로부터 모 든 공정이 흐름식으로 되어있는 땀작업반에서는 수십종의 빵들이 생산되고있었다. 구수하면서도 향긋한 빵냄새가 한껏 풍기고있는 이곳에서는 이롭도 미처 외워보지 못할 수십여가지의 빵이 생산되고있다.

《우리 땀작업반에서는 칼슘과 비타민C를 넣은 영양빵들과 과일들을 넣은 효모빵을 비롯하여 체육인들의 피로회복과 영양에 좋은 빵들을 많이 생산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빵들은 맛도 좋고 보관하기에 편리하여 체육선수

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땀작업반 노동자 라복순의 말이였다. 체육인들을 위한 영양식품생산은 당과류작업반과 떡작업반에서도 한창이였다.

특히 떡작업반에서 생산되고있는 여러가지 찰떡들은 보기에 먹음직스러웠다. 떡작업반에서는 비타민과 광물질이 많은 쉰, 홍당무, 쌀을 넣어 여러가지 찰떡들을 생산하고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룡차가루와 검은찰쌀을 넣어 만든 찰떡은 체육인들이 즐겨찾는 영양식품으로 되고 있다고 한다.

체육인들을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을 받

들어 체육인들의 친부모된 심정으로 영양식품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있는 이들의 헌신의 노력은 모든 생산현장에서 창조의 동음높이 울리게 하고있었다.

실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조업한지 불과 몇해밖에 되지 않은 그리 크지 않은 공장이지만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높이 울리며 수백종의 영양식품들을 척척 생산하고있으니 체육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보배공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공장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나라의 체육과 식료공업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할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웃음이 넘쳐나는 집 (1)

한겨울이라지만 바람 한 점없이 쾌청한 어느날이였다. 라이인민유원지가 자리잡고있는 대동강변을 거닐던 나는 원수가 긴 팔로 반대쪽귀를 휘둘러잡고있는 모양으로 형성된 웃음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떠돌이 웃음집으로 들어간다.

하하하, 호호호... 그칠새없이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에 끌려 나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갖가지 형태의 파도형거울들이 벽면들과 가운데홀의 여기저기에 놓여있는 웃음집의 거울마다에 마주선 사람들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상반신이나 하반신만 마주볼수 있는 모양, 몸을 길게 잡아늘린 모습, 몸전체가 함축된 모습, 뚱뚱한 모양을 보여주는 거울들...

안쪽벽면에는 투색있는 3개의 전자거울이 걸려있었다. 컴퓨터와 연결된 매 전자거울들은 앞에 서있는 사람의 모양을 10초에 한 번씩 변형되게 만들어놓아 15분동안에 수십가지의 인상변화와 몸형태변화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어있다. 반신효과, 전신효과, 얼굴효과를 나타내는 전자거울들은 한 가지 형태변화만을 보여주는 다른 거울들과 달리 자기가 상상해보던 모습까지도 거울을 통해 실물로 볼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었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동신소학교 2학년이 다니는 림광복학생은 뚱뚱으로 변하는 모습, 오만상을 찌푸린 모습, 까나리같은 몸매를 가진 모습들을 보며 전자거울 앞에서 떠날줄을 몰랐다. 모란봉구역 성북동에서 산다는 김성옥녀이 2살 난 딸애를 안고 여러가지로 변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이 웅긴 웅나, 우리 딸애가 맞는가 하며 눈이 다 둥그레진다. 그야말로 동화이야기에 나오는 신기한 《마술》 거울이였다.

처녀, 종각들은 발까지 동동 구르고 아이들은 배

를 그려안고 돌아가고 늙은이들도 내 모양은 어떻게 하고 전자거울앞에서 보곤 한다.

다른 사람들의 변하는 모습을 옆에서 구경하며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던 나도 살짝 전자거울앞에 서보았다. 한쪽눈을 그지시 감고 무엇을 훑쳐보듯한 모양이 비치는가 하면 몸체는 뚱뚱하고 얼굴은 조막만해지기도 한 모습, 얼굴이 망썩갈고 몸은 회초리같은 모습, 개미허리에 상체와 하반신이 요란하게 큰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웃지않고서는 견딜수 없었다. 눈물까지 흘리며 한껏 웃고나니 마음이 들떠오르고 얼마나 기분이 상쾌해지는지 몰랐다.

웃음집이 문을 연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즐거움 웃음속에 새해의 진군길을 다그쳐나갈 심심과 환희에 넘쳐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룡라인민유원지의 웃음집은 끝없이 이어지는 인민사랑에 떠날줄인 웃음의 《샘터》였다.

본사기자 고영숙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통일을 그리며 사는 명가수

전 영화 및 방송음악단 가수 인민배우 최삼숙

전 영화 및 방송음악단 가수 인민배우 최삼숙(64살)에 대한 애칭은 많고도 많다. 그만큼 최삼숙은 가수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최삼숙이 요란한 박수갈채와 축하의 꽃다발속에 묻혀 웃고있을 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망물처럼 무겁게 짓누르는 피로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최삼숙의 내형제는

재능있는 가수로 성공하기까지

▶ 언제부터 가수가 될 꿈을 품고있었는지.

《중학시절 예술에 취미를 가지고 평양학생소년궁전소조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동요, 동시를 읊고 아동극에도 출연했지만 성악에 남다른 기질이 있다고는 생각 못했어.》

학창시절을 마친 후 평양방직공장(당시) 방직공이 된 최삼숙은 로동이 그대로 노래이고 기쁨인 흥겨운 일터에서 공장예술소조에 망라되어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타면서 음악적 재능을 꽃피워나갔다. 당시 최삼숙이 주축이 되어 출연한 가야금병창종목은 전국로동자예술축전에서 특등,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최삼숙은 공장예술소조원으로부터 영화음악단(당시)

복과 남, 해외에 흩어져 살고있다. 한어머니의 피줄을 이은 혈육들이건만 만연하는 프랑스에서, 돌쩌우나는 남쪽에서, 최삼숙과 남동생(최명원)은 북에서 오랜 세월 리별의 고향을 살았고있다. 그와 이 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우리 겨레에게 기진 민족분열의 아픔이 얼마나 쓰라린것인가를 통절히 새겨안는 순간의 련속이였다.

▶ 영화음악가수로서 처음 형상한 노래는?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주제가 <꽃파는 처녀>입니다. 부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예술영화로 옮길 때였습디다.

1977년 9월 23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앞에서 여러명의 가수들이 예 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주제를 불러드렸는데 그이께서 순박한 꽃분이의 성격이 살아나게 노래를 꽃피워나갔다. 당시 최삼숙이 주축이 되어 출연한 가야금병창종목은 전국로동자예술축전에서 특등,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최삼숙은 공장예술소조원으로부터 영화음악단(당시)

저 복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1948년 마가울이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이 해방되자 김봉점은 38°선부근에서 갑자기 해산하게 되었다. 그가 바로 38°선에서 낳은 딸이 라고 하여 《삼숙》이라 이름지은 최삼숙이였다. 《그때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는 만나지 못할줄 알았더라면 데리고왔을걸 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운명하는 순간에도 (남녘에 있는 자식들을 보지 못하고 가는것이 한스럽다.) 고 했답니다.》

헤어져 인제까지

▶ 이야기를 들으니 예술영화 《금희와 은희의 운명》이 생각납니다. 영화에 나오는 노래 《아버지의 추억》을 최삼숙선생이 특음했지요?

《북과 남으로 갈라진 쌍둥이형제의 판이한 운명을 그린 영화인데 남쪽의 언니들을 그리며 눈물속에 노래를 불렀답니다.》 갈수록 커가는 행복속에 웃다가도 남녘의 언니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다는 최삼숙. 하기에 최삼숙은 그 후에도 통일주체의 영화

주제가형상에 남다른 애착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기자의 마음은 아프고 쓰러졌다. 북과 남으로 갈라진 혈육들이 서로 만나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을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조국해방 일흔륙이 되는 올해에 통일의 노래를 더 많이 부르며 자주통일의 대동로를 열어놓는데 이바지하겠다는 최삼숙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있었다.

본사기자 흥범식



올며 헤어진 자식들

▶ 언니들과는 어떻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는지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 해야 할것 같군요. 해방후 반미항쟁이 남조선 땅을 휩쓸 때 저의 어머니(김봉점)는 다섯달이 갓 지난 첫떡이(둘째딸)를 업

고 통일애국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애국자들 대한 검거선봉이 일어났다. 체포성원명단에는 김봉점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김봉점은 부득불 1살, 3살 난 어린 딸들과 헤어

온 민족이 떨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 통 로 를 힘 차 게 열 어 나 가 자 !

전 체 조 선 민 족 에 게 보 내 는 호 소 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가슴은 지금 새로운 신심과 락관으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 전체 조선민족이 힘을 합쳐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옴으로써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는 위대한 원수님시대 통일대진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퇴성으로서 온 겨레의 심장을 뜨겁게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온 겨레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시대의 지향을 반영하여 뜻깊은 올해를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강력적지침이다.

돌이켜보면 삼천리강토에 해방만세의 환호가 진감하던 격동적인 그때 우리 민족이 오늘처럼 장장 70년세월 분렬의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고 과연 그 누가 상상이나 하였는가.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지만 유독 우리 민족만이 아직도 분렬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 겪고있는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나 다 통분할 일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외세가 강요한 분렬의 역사를 끝장내지 못한채 일흔번째 해를 맞이하게 된것자체가 참을수 없는 수치이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조국통일을 절절히 갈망해온 우리 민족이 조국해방 70년,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올해에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놓지 못한다면 통일은 더욱더 뒤흔해질 것이며 이 땅에는 영구분렬의 위험이 한층 짙게 엄습하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자주통일이냐 영구분렬이냐 하는 중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있다.

우리 민족은 뜻깊은 올해를 절대로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되며 시대와 역사는 온 겨레가 한사람같이 떨쳐나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과 강렬한 통일외지,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려는 비범한 용단과 숭고한 민족애가 구절구절 맥박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새해 조국통일의 진군길에 나선 온 겨레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북남관계의 대전환의 해, 대변혁의 해로 빛내일 일념을 안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온 겨레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표대이며 고무적기이다.

악화된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길도, 전쟁화약이나 다름없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고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는 실천적인 방도도 여기에 있다.

신년사의 중대제안들이 실현된다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이 일어나고 대결과 적대로 쫓겨 들어붙은 삼천리강토에 6.15시대와 같은 경이적이며 환희로운 화폭이 장엄히 펼쳐지게 될것이다.

이 땅에 태를 묻고 민족의 넋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그토록 대범하고 격동적인 애국애족의 호소에 어찌 가슴 높뛰고 심장이 끊지 않겠는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

게 될 올해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역사적인 신년사의 호소에 화답하자!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밀에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통일의 앞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 분렬의 장본인인 미국은 지금 거세게 분출하는 우리 겨레의 통일열기와 화해합합기운을 두려워하며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우리 민족을 리간시키고 대결을 고취하며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있는 일체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침략책동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외지를 특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2.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관계개선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자!

북과 남은 언제든지 통일조국의 한지붕밑에서 함께 살아야 할 한피줄을 이은 한겨레, 한동포이다.

통일의 길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제하지 않고 그가 누구이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지향한다면 함께 손잡고 나가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동족을 《적》으로 보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반대하면서 일방적인 《체제통일》을 추구한다면 언제가 도 북남관계는 개선될수 없다.

승승장구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몇몇 인간스레기들을 부추겨 날리는 어지러운 종이 장파위로 흔들릴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처럼 어리석은것은 없다.

누구나 눈앞의 현실을 특바로 보고 북남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하며 동족대결에 광분하는 한중도 못되는 반통일분자들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

민족분렬 70년이자 조선전쟁이 일어난지 65년이 되는 올해를 동족을 반대하여 외세와 함께 벌리는 전쟁연습이 없는 첫해, 조선반도의 평화기 시작되는 역사의 해로 만들자!

해마다 강행되는 북침전쟁연습이 《년례적》이어서 중단할수 없다고 강변하고 《방어적》이라고 정당화해나선다면 백년이 가도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할수 없고 핵전쟁의 위험을 가질수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관계개선을 해치고 민족의 머리에 핵참화를 몰아오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반대배격해나서야 한다.

3. 북남당국은 관계개선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화와 협상을 적극 전진시켜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북남당국의 책임은 그 어느때보다 무겁다.

지금 세계가 관계개선과 통일의 중대고비에 들어선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커다란 관심속에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관계개선의 제반 문제들을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있으며 북남대화와 관련된 중대립점을 천명하였다.

북과 남은 더이상 별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무의미한 언쟁을 하면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할 의지가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거나 정략적목적에 리용해보려는 대화는 백해무익하며 시간낭비일 뿐이다.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전쟁밖에 초래할것이 없는 무모한 《체제통일론》과 결별하고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며 편협하고 적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자세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변영을 위한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은 북남관

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역사의 장엄한 흐름에 적극 합류해나서야 하며 그에 제동을 걸거나 왜방해서는 안된다.

4. 북과 남의 각계각층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합,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밀에 통일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진군하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열다섯돛과 조국해방 일흔돛을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전민족적인 대경사로 뜻깊게 기념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민족공동행사도 벌리고 계층별통일회합도 성대하게 열어 우리 동포, 우리 겨레가 사는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합성, 민족단합의 열기가 뜨겁게 차넘치게 하자!

북남사이의 체육문화 등 각 분야의 접촉과 교류를 적극 추동하여 민족의 혈맥과 뉴대를 잇고 민족의 우수성과 공동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자!

전체 조선동포들!

올해의 투쟁목표는 뚜렷하고 겨레의 통일기세는 총천하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간다면 그 장엄한 위용은 세계를 경탄시키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유관국들과 국제사회가 조선반도에서 동족대결을 부추기며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며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통일의 앞길에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조선민족의 슬기와 힘으로 기어이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를 안아오려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전도는 락관적이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애국의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것을 다시 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

주제 104 (2015) 년 1월 20일

평 양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부면과업관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가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래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래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받들어모시자!》,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등의 구호들이 회의장에 나붙어있었다.

연합회의에서는 의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연합회의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공화국 정부, 정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 진행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단체연합회의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에 하신 역사적인 신년사는 온 겨레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의지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통일애국의 기치이며 전체 조선민족을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위한 거족적운동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호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조국통일과업을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서 확고히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으로 받아안고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용단과 불타는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심장에 새기고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파감히 짓부셔버리며 올해에 기어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옴으로써 자

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루어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면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끌어온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은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올해에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 민족대단합의 숭고한 리념밀에 통일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진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조선민족이 6.15공동선언발표 15돛과 조국해방 70돛을 전민족적인 대경사로 빛내임으로써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합성, 민족단합의 열기가 뜨겁게 차넘치게 하며 민족의 혈맥과 뉴대를 잇고 민족의 우수성과 공동성을 온 세상에 과시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관철하는 길에 악화된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길도, 전쟁화약이나 다

름없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고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는 실천적인 방도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된다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이 일어나고 불신과 대결만이 지배하던 삼천리강토에 6.15시대와 같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화폭이 장엄히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땅에 태를 묻고 민족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범하고 격동적인

애국애족의 호소에 심장의 피가 끊지 않을수 없을것이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화답해나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호소를 높이 받들고 통일애국의 의지와 열망을 총폭발시켜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대전환의 해,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합회의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온 겨레를 통일애국어로 부르는 뜻깊은 호소

지난 1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온 민족이 떨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힘차게 일어나갈데 대한 뜻깊은 호소문을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었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의 호소문은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올해를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 서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온 겨레를 부르는 뜨거운 애국의 호소이다. 또한 그것은 북남관계가 처한 오늘의 현실과 장장 70년을 헤아리는 민족의 분열을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다는 시대적요구,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한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매우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애국의 호소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진 때로부터 70년 세월이 흘렀다. 5000여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단일민족인 우리 겨레가 지난 세기 40년대 종말에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열의 멍에를 아직도 벗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가슴아픈 비극이고 통분할 일이다.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있는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로 하여 더해만 지고있는 민족의 막대한 피해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 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이

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은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지난해에 공화국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기 위하여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대법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노력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북남관계는 도리어 악화의 길로 저달음쳤다.

전체 조선민족은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 이룩하고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북남 사이의 불신과 반목,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

온 겨레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과 중대립장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표대이며 고무적이치이다.

악화된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길도, 전쟁화약이나 다름없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고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는 실천적 방안도 여기에 있다.

신년사의 중대제안들이 실현된다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이 일어나고 대결과 적대로 쟁쟁 얼어붙은 삼천리강토에 6.15시대와 같은 경이적이며 환희로운 화폭이 장엄히 펼쳐지게 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올해에 북남관계개선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은 피출도 언어도 문화도 력사도 하나인 단일민족이며 북남관계는 괴를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 함께 손잡고 통일을 이룩해야 할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다. 북과 남에 비록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지만 그것은 동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는 되지 않는다.

공화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어린 립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새해벽두부터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반공화국배라살포망동을 부리는 등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대결소동을 빼짓이 벌리고있다. 그런가하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공화국의 평화에 호적인 호소에 호응할 대신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강행

을 공언해나서고있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온 민족은 북남관계개선을 해치고 민족의 머리에 핵참화를 몰아오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반대배격해야 한다.

북남당국은 관계개선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화와 협상을 적극 추진시켜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가는데서 북남당국의 책임은 그 어느때보다 무겁다.

북과 남은 더이상 별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무의미한 언쟁을 하면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다. 이것은 장장 70년에 걸치는 민족분열의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조국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합,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밑에 통일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진군해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열다섯돌과 조국해방 일흔돛을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전민족적인 대경사로 뜻깊게 기념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민족공동행사도 별리고 계층별 통일회합도 성대하게 열어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 통일의 함성, 민족단합의 열기가 뜨겁게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간다면 그 장엄한 위용은 세계를 진감시킬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의 뜨거운 애국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나서야 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가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시) 통일로 가자

김태룡

이 땅이 갈라져 어언 70년 땅을 쳐 통탄할 비극의 그 세월이 일흔번째 년륜을 감은 이해 겨레여, 우리는 서있다 자주통일이냐 영구분열이냐 력사의 분기점에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민족이 그토록 피땀나게 갈망해온 통일 이해에 통일의 돌과귀 열지 못한다면 조국해방 70년 그 8월로 함께 가지 못한다면 우리 조선사람이라 말하지 말자

부르고있지 않느냐 우리의 가슴 팡팡 울려주고있지 않느냐 자주통일의 대통령으로 온 민족을 부르신 절세위인의 불같은 그 호소 떨쳐나서라 애국애족의 호소를 받들어 북과 남 해외의 조선동포들이여!

외세가 아닌 한겨레의 손을 잡고 전쟁의 불구름 떠돌지 않는 평화의 하늘은 한해 푸르게 펼쳐여가자 진심과 진정으로 마음 특 터놓고 관계개선의 문 함께 열어제끼자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넘어 막아서는 온갖 장애 짓부시며 가자 뜻과 힘 합쳐 못이룰 일 있으라 충천한 통일기세 파감히 떨쳐가자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이여! 애국애족의 불길 거세게 추켜들고 통일의 열기로 삼천리를 뚫게 하라 오, 자주통일의 대통령으로 겨레여 나서라 7천만여 나서라

6.15시대의 통일열풍을 불러

이번에 발표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의 호소문은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지극히 정당하고 시기적절 한 애국의 호소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외세가 강요한 분열의 력사를 끝장내지 못한채 일흔번째 해를 맞이 하게 된것자체가 더이상 참을수 없는 수치이다.

조국해방 70돛,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올해에 6.15시대의 통일열풍을 이 땅위에 다시 안아오자는것

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이다.

6.15시대는 대결과 적대로 쟁쟁 얼어붙었던 삼천리강토를 통일의 열풍으로 녹이며 돌이 되면 못사는 하나, 들을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되는 통일을 하루빨리 안아오려는 우리 민족의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게 하였다.

북과 남은 그날처럼 민족공동행사도 별리고 계층별 통일회합도 성대하게 열어나가며 북남사이의 체육문 화 등 각 분야의 접촉과 교류를 적극 추동하여 민족의 혈맥과 뉴대를 잇고 민족의 우수성과 공동성을 온 세상

에 과시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하며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반대하는 체제대결과 전쟁연습소동을 그만 두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 화해단합의 기운은 거세게 분출하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투사로서의 사명감을 굳게 자각하고 6.15시대의 통일열풍을 다시금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앞장에서 힘차게 열어나가겠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원 김문호

조국해방의 환희가 민족분열의 쓰라린 비분으로 바뀐 때로부터 어느덧 70년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간 세월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한두마디의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수 없다.

림진강의 맑은 물우로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엘수 있었어도 대대손손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분계선이 가로막혀 북과 남을 자유로이 오가지 못하고 생리별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여왔다.

조국해방의 그날에 출생의 고고성을 러쳤던 해방동지들도 이제는 백발을 머리에 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하나로 된 조선민족의 넘과 기상을 떨쳐야 할 국제적인 체육경기들에 북과

남이 서로 다른 팀으로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는 비극적현실,

분열의 장벽에 가로막혀 생리별당한 가족, 친척들의 처절한 통곡과 수많은 아들딸들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부르고 또 부른 통일의 웨침은 이 나라의 산과 강물에 진하게 승

와 혈맥을 잇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으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되고 있다.

분열의 년륜이 70년째의 돌기를 새기는 올해에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이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우리 민족은 수 없는 영원한 하나이며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가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가 7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북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은 북남관계개선에 방해를 조성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비리성적 인 《중북》몰이를 견여치 않고 《5.24조치》를 해제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올해를 평화의 해로 력사의 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의 호소문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는 애국, 애족, 애민의 호소이다.

특히 올해를 동족을 반대하여 외세와 함께 벌리는 전쟁연습이 없는 첫해, 조선반도의 평화가 시작되는 력사의 해로 만들자는 호소문의 구절구절은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것을 바라는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과 평화념원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북의 요구가

고도의 심리전》이니 뭐니 하며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오는 3월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하려 하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 없이 벌어지는 대규모북침 핵전쟁연습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 되고 극악한 도발이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유린하는 행위인 이 불량난소동을 더이상 지속시키

지 말아야 한다.

전쟁연습이 없는 첫해, 조선반도의 평화가 시작되는 력사의 해, 구절구절마다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고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려는 지향과 의지가 얼마나 강렬하게 맥박치고 있는것인가.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이 애국애족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나서야 한다. 그 길에 인종이 변형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민족화해협의회 부원 리어금

배어있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도 분열의 비극을 겪게 되며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둘로 갈라질수도 있다.

오늘 분열의 력사를 끝장내고 끊어진 민족적뉴대

남이 서로 다른 팀으로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는 비극적현실,

분열의 장벽에 가로막혀 생리별당한 가족, 친척들의 처절한 통곡과 수많은 아들딸들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부르고 또 부른 통일의 웨침은 이 나라의 산과 강물에 진하게 승

와 혈맥을 잇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으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되고 있다.

분열의 년륜이 70년째의 돌기를 새기는 올해에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이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우리 민족은 수 없는 영원한 하나이며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가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6.15시대의 열풍이 다시 한번 휘몰아치게 하자!

조국해방의 환희가 민족분열의 쓰라린 비분으로 바뀐 때로부터 어느덧 70년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간 세월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한두마디의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수 없다.

림진강의 맑은 물우로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엘수 있었어도 대대손손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분계선이 가로막혀 북과 남을 자유로이 오가지 못하고 생리별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여왔다.

조국해방의 그날에 출생의 고고성을 러쳤던 해방동지들도 이제는 백발을 머리에 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하나로 된 조선민족의 넘과 기상을 떨쳐야 할 국제적인 체육경기들에 북과

남이 서로 다른 팀으로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는 비극적현실,

분열의 장벽에 가로막혀 생리별당한 가족, 친척들의 처절한 통곡과 수많은 아들딸들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부르고 또 부른 통일의 웨침은 이 나라의 산과 강물에 진하게 승

와 혈맥을 잇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으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되고 있다.

분열의 년륜이 70년째의 돌기를 새기는 올해에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이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우리 민족은 수 없는 영원한 하나이며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가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종북》소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옛적에 어떤 사람이 창과 방패를 들고나와 그 어떤 방패도 뚫을수 있는 창, 그 어떤 창도 막을수 있는 방패라고 하였다가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어보라는 말에 입을 봉하고말았다고 한다.

말의 어원이다.

대립물들의 호상관계를 집약한 《모순》이라는

1. 《종북》이란 무엇인가

《종북》이란 말은 남조선에만 있는 말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로 전진하던 시기에 국우보수세력들속에서 유행하던 《빨갱이》란 말을 대신한 것이 바로 《종북》이라는 표현이다.

《종북》이란 말은 남조선에만 있는 말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로 전진하던 시기에 국우보수세력들속에서 유행하던 《빨갱이》란 말을 대신한 것이 바로 《종북》이라는 표현이다.

보수세력이 집권하면서 《종북》은 정치적적수나 집권에 방해되는 세력을 공격하는 《창》으로, 친미와 동족대결을 《합리화》하는 《방패》로 적극 활용되고있다.

일반적인 《종북》시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종북국회》의원, 《종북》시장, 《종북》신부, 《종북》성향사이트, 《종북》방송인, 《종북》주사과, 《종북》지하혁명조직, 종당에는 전직 《대통령》도 《종북》으로 몰아갈 정도 《종북》의 덩어기를 쓰지 못할 사람이나 대상이 없는 형편이다.

남조선당국이 북과의 《대화》를 말하면서 《종북》소동을 벌리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모순이다.

에 걸면 꼬걸이식으로 붙이면 붙이는데로, 누구에게나 해당될수 있는 《만능치방》이 바로 《종북》이다.

실제로 《종북》의 대상은 계선이 없다.

남조선에서 《리적단체》, 《종북》세력으로락인된 단체는 범민련, 범청학련, 6.15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우리민족연방제동일추진회의 등 15개이지만 공안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친북》, 《종북》단체는 200여개, 지하조직까지 합치면 그 수는 헤아릴수 없다고 한다.

2012년 남조선군당국이 벌린 《종북교육》의 내용을 보면 현재 남조선에 《종북핵심세력》이 3만명, 《종북동조세력》이 30만~50만명, 《부동세력》이 300여만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런가하면 2008년 미국 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초불시위투쟁때 《친북좌파세력》, 《종북》세력으로 락인된 단체만도 1 850여개나 되었다.

《종북》세력이 짝 짝 갈려있고 주민의 대다수가 《종북》이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저들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정당, 단체, 주민들은 다 《종북》세력이거나 《종북》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해괴한 논리의 귀결이다.

그 논리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사회의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짓밟고있다.

최근에도 《자주민보》

2. 모순투성이의 《종북》소동

남조선당국은 집권하면서 《100%를 아우르는 국민대통합》을 《공약》

하지만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을 추종하는 세력은 용납될수 없다》고 발언한것처럼 당국자의 《국민대통합》은 이미 물건너간 빈약속이라 는것을 알수 있다.

어느 한 보수단체의 대표라하는자도 《국민대통합》이라고 하는건 《종북》좌파와의 대통합까지 의미하는게 아니다.》라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이다.

당국자를 지지하면 《대통합》의 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라도해야 할 대상. 《종북》이 된다것인가.

폐간책동, 통합진보당해산사건, 재미동포의 《통일콘서트》 탄압과 강제추방 등 《종북》을 간판으로 걸고 벌어지는 파쇼폭압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보는바와 같이 《종북》은 남조선인민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동족에 대한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며 강권통치의 구실로 되는 비리성적이며 반민족적이며 파쇼적인 폭압성격을 띠고있는 시대착오적인 표현, 언어 아닌 언어이다.

무분별한 《종북》소동의 한가지 모순이다.

북을 찬양, 동조하는것이 《종북》이라는데 그 또한 동에 당치 않는 소리이다.

아래에 재미동포 신은미가 북을 방문하여 《국제친선전람회》를 참관하고서 받은 인상을 적은 글내용을 소개한다.

《국제친선전람회》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세계 각국의 국가원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과 단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전시해 놓은 곳이라고 한다. 선물을 전시해놓은 방이 200여개나 되는데 제대로 다 보려면 몇개월정도로는 안될

것 같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선물을 했을지 궁금해 두 나라 전시관만을 보여달라고 했다. 해설원은 많은 선물을 가리키며 《누가 언제 가지고왔다.》고 일일이 설명해준다. 빌 클린톤을 비롯한 미국의 전직대통령들, 김일성주석과 친했다는 빌리 그라함목사, 박정희, 전두환 등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보낸 선물 등...너무도 많은 그리고 의외의 인물들이 귀한 선물들을 보냈다는 사실에 순간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다.》

이 글을 보면 현 남조선 집권자의 아버지로부터 전직 《대통령》들이 다 《종북》원조이다.

13년전 그도 평양을 방문하여 녀성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토의하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방문기를 남겼는데 자기 역시 《종북》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이다.

남을 찌르려는 칼이 이렇게 자기도 찌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식생활습습에 대해 말할 때 밥, 떡, 김치, 된장을 빼놓을수 없다.

우리 민족에는 씨름, 연퍼뛰기나 다리밟이, 널뛰

기, 그네뛰기 등과 노래 《아리랑》도 있다. 이를 즐기고 노래부르는 것은 북이나 남이나 다르지 않을진대 북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남에서는 배제하고있는가.

3. 《종북》소동과 북남관계

부질없는 《종북》소동 때문에 남조선내부는 종북 벌등지를 쑥셔놓은것처럼 되고 자체모순과 끝없는 남남갈등에 시달리고있다.

그런데도 북이 대화를 제의하고 공동행사하자고 하면 《남남갈등》을 부추킨다고 하고있다. 남남갈등은 그들이 조장하고 부채질하면서.

북은 어제도 오늘도 화해와 단합을 웨치고있다. 남조선당국도 《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저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고 말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전역에서 북을 《주적》으로 삼은 《종북》소동이 횡행하고 반복대결이 극도로 고취되는 속어떻게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진척되었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의 보수는 애당초 북과의 협력을 바라지 않고있다.

북도 남도 민족이라는

보려고 평양을 다녀온 수천명의 남조선주민들,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다녀온 관광객들도 다 용납할수 없고 《종북》으로 몰아 칠해야 한다면 남조선은 퍼투성이무대가 될것이다.

들어다볼수록 자체모순적이고 파벌속락자가당착에 빠지는 《종북》소동이다.

한울타리안에 있고 진보든 보수든 마음을 합쳐야 화해의 통일, 평화통일이 온다.

조국해방 일흔돐,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이해는 관계개선과 통일의 분수령을 이루는 해이다. 외세가 강요한 분열, 그해가 되어 이 땅에 존재해 온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누구든 이 엄연한 현실을 바로 보고 무의미하고 서로에게 피해만 주는 어리석은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외세가 갈라놓은 이 땅을 70년이상이나 동족대결의 마당으로 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데서 온다. 《종북》소동은 그 반대의 길로 남조선인민들을 추동하는것이다.

더이상 황당하고 격분스러운 어리석은 놀음으로 가뜩이나 악화되어있는 북남관계에 그늘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정혁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날뛰고있는 미군과 남조선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미국의 인권실태



세 상에 미국만큼 인권에 대해 떠드는 나라가 없다.

누가 시키지도 청하지도 않았건만 세계의 어디에나 코를 들이밀며 《인권재판관》 노릇을 하는것이 다름 아닌 미국이다.

하다면 그러한 미국의 인권실태는 과연 어떠한가. 몇가지 사실을 놓고 보자.

지난해 12월 23일 저녁 미국 미주리주의 소도시 버클러시에서는 18살 난 흑인청년인 백인경찰의 총에 맞아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에서 흑인살해사건이 일어난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21세기에 들어선지도 10여년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흑인살해와 같은 인종차별행위가 공공연히 감행되는 미국사회야말로 세계 최악의 인간살륙국, 인권말살국이다.

미국인구는 세계인구의 5%밖에 안되지만 수감자수에서는 세계총수감자의 25%를 차지하고있다.

미국의 수감자들은 세계에서 제일 높는데 인구 10만명당 수감자수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와도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높은 형편이다.

미국에서는 감옥에 차고 넘치는 수감자들로 하여 여러가지 난문제들이 발생하고있으며 감옥들에서는 각종 인권유린행위들이 거 리낌없이 감행되고있다. 사실상 미국은 인권에 대해 입에 올릴 한조각의 체면조차 가지고있지 못

하다.

그러한 미국이 마치 《인권재판관》이나 되는 듯이 높아대며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걸고들며 시비질을 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

미국이 《인권》타령은 그 누구의 인권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압력과 간섭, 침략의 구실로 되고있다.

미국인구는 세계인구의 5%밖에 안되지만 수감자수에서는 세계총수감자의 25%를 차지하고있다.

미국에서 흑인살해사건이 일어난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감옥에 차고 넘치는 수감자들로 하여 여러가지 난문제들이 발생하고있으며 감옥들에서는 각종 인권유린행위들이 거 리낌없이 감행되고있다.

사실상 미국은 인권에 대해 입에 올릴 한조각의 체면조차 가지고있지 못

본사기자 서 희

평화통일분위기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대결소동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화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외세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70년간의 분열력사를 끝장내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그러나 내외호전세력들은 이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며 정세를 더욱더 악화시키고있다.

최근 내외호전세력들은 조선반도 《유사시》 공화국의 《핵 및 미사일제거》와 《북지역에서의 민사작전》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남조선미국 《련합사단》 참모부를 공식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가동시켰다.

그런가하면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오는 3월부터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고 떠들면서 년초부터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전쟁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내외호전세력들이 새해벽두부터 벌리는 이러한 행위들은 북침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북침전쟁공격을 실천단계에 옮기기 위한 엄중한 군사적도발로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올해는 우리 민족이 40여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해방을 이룩한지

일흔돐이 되는 해인 동시에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에 의해 민족분열의 비극이 시작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

사람의 한생과도 맞먹는 이 오랜기간 우리 민족은 외세가 강요한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로 되고 수많은 부모, 친척, 형제자매들이 생리별을 당한채 생사를 알수 없는 고통속에 몸부림치며 살아왔다. 그런가하면 정전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살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속에 살고있다. 세기를 이어오는 이러한 분열의 역사, 미국의 역사는 종식되어야 한다.

하기에 공화국은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인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들을 당장 중지할것을 호소하였다. 분열의 역사를 더이상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진정을 그대로 담은 공화국의 이 요구는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출발한 지극히 정당한것으로서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력대 그 어느 《정권》들보다 통일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하고있는 현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공화국의 공명정

대한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구차한 변명과 구실을 내세우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세와 야합한 대규모전쟁연습들을 계속 강행하려 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통일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정체를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는것이다.

더우기 공화국의 《핵 및 미사일제거》, 《북지역에서의 민사작전》과 같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남조선미국 《련합사단》 참모부의 본격가동은 미국의 변하지 않은 대조선압살책동과 함께 남조선당국이 《제도통일》, 《휴수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을 여전히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공화국은 이미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그 어떤 도전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나갈것이며 징벌할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내외호전세력들은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이 싫지고 불속에 뛰어들는 어리석은 망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김응철



미국에서 관때니모미해군



관서팔경의 하나
 관서팔경의 하나
 관서팔경의 하나
 관서팔경의 하나

관서팔경의 하나 - 련광정

평양 련광정

유구한 역사를 가진 평양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대동강기슭에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며 련광정이 오늘도 거연히 서있다.

련광정에 씌여있는 시구는 지금으로부터 근 1 000년전 고려의 시인이었던 김황원이 대동강기슭의 부벽루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여 쓴 시의 한 구절이다.

이 시구가 씌여진 글씨판이 오늘

전해지고있다.

고구려사람들은 당시 평양성의 동쪽장터에 련광정을 세운후 여러차례 고쳐지었다.

한때 련광정을 《산수정》이라고도 불렀는데 그것은 고려시기 평양성을 보수하고 이 자리에 다시 루정을 세운후에 불리운 이름이다.

련광정으로 불리우기 시작한것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670년에 다시 세우면서부터이다. 련광정에서 연대가 서로 다른 글자새긴기와 20여종이 발견된 사실은 련광정을 여러차례 보수하였음을 알수 있게 한다.

련광정은 대동강기슭에 쑥 내민 덕바위와 그결의 깎아지른듯한 절벽우에 바짝 내밀어 세워 주변환경과 아주 잘 어울린다.

련광정의 밑부분은 땅을 파서 돌을 깔고 그우에 주춧돌을 놓은 다음 지면이 좀 높은 대동강쪽 바위우에는 큰 나무기둥을 받치고 서쪽의 낮은 곳에는 네모돌기둥을 받쳐 수평을 잡았다. 그리고 그우에 다락을 세웠다.

련광정은 왜적을 쳐물리친 우리 겨레의 애국적투쟁이야기가 깃들어 있어 더욱 유명하다.

대동문, 평양종을 비롯한 오랜 문화유적, 유물들이 있는 련광정으로는 오늘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본사기자

박유전은 판소리음악발전의 전성기를 펼친 8명 창시대에 판소리음악류파의 하나인 《서편제》의 창시자로 이름이 높았던 명창중의 명창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후날의 일이고 그가 노래공부를 시작하게 된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박유전의 한창 자라던 소년 시절, 당시 사람들의 절찬속에 널리 보급되고있던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였던 그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도 노래공부를 시켜 이름난 소리꾼으로 키우고싶어 큰아들인 박유전의 형을 소리꾼으로 키우려고 마음먹고 달라붙었다. 하여 아버지는 사랑방을 노래방으로 정해놓고 노래를 가르칠 선생을 청해다가 큰아들에게 노래공부를 시켰다. 그리고 한쪽 눈이 없는 《외눈박이》인 작은 아들 박유전은 매일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다니게 하였다.

박유전은 노래를 무척 좋아하였고 형처럼 품종고 노래공부를 하고싶었으나 제 처지를 생각하며 어쩔수없이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다녔다. 그런 속에서도 집에 오면 형에게

인재는 소질에 따라

가르치는 선생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입속에서 굴러보았고 산에 가서는 락엽을 끊으며 혼자서 목청껏 불러보곤 했다.

세월이 흐른 뒤 어느날 박유전의 형은 선생과 아버지앞에서 그간 배운 노래를 시험치게 되었다. 온 집안사람들의 큰 기대속에 《시청회》가 열리었다

으나 형의 소리재간은 말이 아니었다. 애당초 소리를 뽐아내기 힘들어했고 선생이 품들여 배워준 노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짤짤했다. 크게 기대했던 아버지는 그만 실망하고말았다. 이때 옆에 앉아 구경하고있던 작은 아들 유전이가 아버지앞에 쉰하니 나섰다.

《?!》 아버지의 반대를 겁내듯 먼저 노래소리부터 터져나왔다. 노래를 배우지도 못했던 작은 아들이 어찌나 구수하게 엮어대고 류창하게 뽐아내는지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고운데다가 곡조와 가사의 불입새도 절묘하게 맞추면서 넘겨가는것을 보며 선생님도

아버지도 깜짝 놀라고말았다.

그날부터 박유전은 형 대신 사랑방에 들어앉았고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과 기대속에 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노래공부에 전격하였다. 후날 박유전이 전역의 소리꾼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대경연에

나가 관객의 인기를 모으며 명창으로 이름떨쳤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업신여긴 나무가 뿌리 박히고 꾸부렁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하더니 우리 유전이가 가문을 빛내이는구나. 예로부터 인재는 소질이나 재질을 보고 천거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실수를 경계함이로구나.)

본사기자

축 말 (1)

《말이 마음이고 마음이 말이다.》

말이란 바로 속마음의 표현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자 사상의 표현이라는것을 이르는 말.

《말이란 락해 다르고 특해 다르다.》

같은 내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듣는 맛이 달라진다는 뜻으로 말은 상대방이 받아들일수 있도록 억양이나 표현 하나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입은 비뚤어도 말은 바른대로 하라.》

비록 불리한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말만은 정직하게 사실대로 하라고 경고하여 이르는 말.

《말을 잘하면 천냥빛도 값는다.》

말만 잘하면 엄청난 큰 빛도 면할수 있다는 뜻으로 말을 잘하고 못하는것이 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겨울철민속놀이 제기차기

제기차기는 제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차는것을 겨루는 어린이놀이이다. 제기는 엽전이나 동그란 쇠 조각 같은데 종이나 짐승털, 형질 등을 솔처럼 달아서 만들었다.

세나라시기에 꿩깃을 단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차는 《축국》이라는 청장년들의 체육유희가 있었다. 그것이 어린이유희인 제기차기로 변하였다고 보고있다.

제기차기에는 개별적으로 노는 방법과 집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개별적으로는 한발로 땅을 딛고서서 다른쪽 발의 안쪽모서리로 련속 차올리

기, 량쪽발의 안쪽모서리로 번갈아차기, 한쪽 발의 안쪽모서리와 다른쪽 발의 뒤축으로 번갈아차기, 한쪽 발만 땅을 딛고 다른쪽 발은 땅을 딛지 않고 차다가 제기를 높이 올려차서 머리카락 끝까지 닿도록 련속 차다가 마감에 떨어 차던지기, 제기를 차면서 일정한 거리를 돌아오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승부를 겨루었다.

집체적으로 하는 제기차기방법에는 우와 같은 방법을 편을 갈라하는 외에 제기를 차면서 서로 넘겨 주고받고 하는 등 몇가지가 있다.

제기차기는 오랜 시간 한발로만 땅을 딛고서서 동작을 하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기때문에 평형감각이 발달되어 공중 폼다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판단력과 그에 적응한 명증력을 키

워준다. 특히 어린이들로 하여금 추위앞에 기가 죽지 않고 활기있게 놀면서 몸을 튼튼히 단련하게 하는 좋은 놀이이다. 제기차기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기질과 요구에 맞는 재미있는 놀이인것으로 하여 오랜 옛날부터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팽이치기, 제기차기외에도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썰매타기, 연 띄우기, 배부기치기, 숨박꼭질, 줄넘기 등을 하면서 겨울추위를 이겨내며 튼튼히 자라났다.

본사기자



사화 최영장군의 벼루 (5)

글 정의선, 그림 김윤일

《음, 자네가 내 폐부를 찌르는군. 내 흉금을 터놓고 말한다면 나는 최영장군의 심문판으로 참석한것을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여기네. 송헌대감이 어명이라면서 나까지 심문판으로 지명하였을 때 그것을 뿌리치지 못한것을 크게 후회하네. 나는 심문장에서 최영장군의 언행을 보면서 약간 감탄하지 않았네. 장군이 낮빛 하나 번치 않고 정정당당히 자기의 견해를 력설할 때 그 사람이 야말로 회세의 대장부임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고 장군은 과연 장군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네. 장군의 의도대로 료동공략을 단행했어야 우리의 건국시조인 태조대왕님의 뜻대로 고구려의 후예국가로 옛땅을 되찾을수 있었을지네. 생각하면 통절한 일이지...》

이 말을 들은 문경운은 감격어린 목소리로 《대감

님께서 저같이 하찮은 소인에게 흉중의 말씀을 허물없이 다 하여주시니 소인은 몸둘바를 모르겠소도. 저같이 몽매한 사람도 고명하신 대감님의 견해가 천만 옳다는 생각이 옵니다. 소인뿐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모두가 최영장군의 처형을 통탄하고있소이다.》

《그대의 말이 옳네. 최영장군이 참을 당한 날부터 사흘동안이나 온 장안의 장사치들이 저자문을 열지 않은 사실이나 장군의 시신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대소인들이 모두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머리를 숙여 조의를 표시하였도 남너로스 아녀자들까지도 애석함을 표시하여 눈물을 흘리었다니 이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명장에 대한 경모의 표시였네.》

최영장군의 그 벼루를 불칙한자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목숨

을 바친 그 로인의 모습이 눈앞에서 얼른거리는것 같네.》 정몽주는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닦았다. 문경운, 부디 귀채만강하옵소서. 문경운은 정몽주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폈다.



로 말하였다. 《언젠가는 최영장군이 애용하던 그 벼루가 반드시 사람들앞에 나타나 장군의 울골은 마음을 만천하에 알려주게 될거네.》 그러자 문경운이 말했다.

《시중대감님의 뜻을 알겠소이다. 소인이 어떻게 하나 그 로인이 감춘 벼루를 꼭 찾아내어 그 벼루를 통하여 최영장군의 품모를 세상이 다 알도록 하겠소이다. 그럼 대감님의 바쁘신 시간을 더 뺏지 않겠소이다. 대감님, 부디 귀채만강하옵소서.》 문경운은 정몽주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폈다.

《벼루때문에 목숨을 바친 그 로인이 삼엄한 감시속에서 밖으로 나갈수는 없었을것이고 울안이나 뒤뜰에서 그 어떤 행동도 못했을것이다. 그러니 그가 벼루를 감추었다면 모름지기 자기가 거처하는 방일수 있다.》

이렇게 추리한 문경운은 최영장군이 거처하던 맛은 편 사랑방에 그 로인이 있었을것이고 벼루를 감추었다면 이 방 어디에 감추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집을 헐 때는 벼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문경운은 구들장밑에 주의를 돌리었다. 방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니 방 우묵의 구들장을 손질한 흔적이 보였다.